

# 해남 우수영~신안 장산·신의도 뱃길 열린다

### 하루 3회 연중운항·1시간 단축 수산물 물동량 ↑ 관광객 유입

해남군 우수영에서 신안군 장산도·신의도를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카페리 여객선이 취항한다. 기존 항로에 비해 이동 시간이 1시간 단축됨에 따라 섬 지역 주민들의 교통복지 향상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5일 해남군에 따르면 지난 23일 해남군청 상항실에서 명현관 해남군수와 (유)신진해운 박금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우수영~장산도·신의도 항로에 여객선을 운항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26일부터 하루 3회 연중 운항할 여객선은 449톤급 카페리여객선 드림 아일랜드호로 여객정원 314명, 차량 37대를 선적할 수 있다.

우수영에서 신의도까지는 1시간10분

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기존 목포-신의항로에 비해 1시간 가량이 단축된다.

8월에는 신규 여객선을 추가로 투입해 40분 가량이 소요되는 우수영~장산도 구간을 별도 운항할 계획으로 있어 섬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장산도와 신의도, 하의도는 전국 최대 천일염 생산지이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생가 등이 위치해 연중 관광객들이 붐비는 지역으로, 항로가 개설되면 우수영항을 통한 소금 등 수산물 물동량 증가와 관광객 유입의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해남 우수영항은 인근 시군에서 접근이 원활하고, 무료 주차공간이 넓어 차량 이용에 부담이 없으며 서울, 목포, 순천, 부산 등 타지역으로 진출하기가 편리한 교통의 요지이다.

현재 제주도를 왕복하는 쾌속 여객선



해남군이 (유)신진해운과 우수영~장산도~신의도 항로 여객선 운항 협약을 맺었다.

해남군 제공

이 운항 중이며, 업무협약을 통해 해남군은 우수영항 터미널에 매표소 등을 설치하고 운항을 지원할 계획이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우수영~장산도·신의도 간 여객선 취항은 우수영항 활성화의 중요한 계기로, 우수영 오일장과 관광

지 등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며 "우수영항이 서남부의 중심항이 될 수 있도록 여객선사와 협조해 차질없는 운항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해남=전연수 기자

### 위생해충예방 드론 방역 실시 목포시, 9월초까지

목포시는 위생해충 취약지역에 대한 드론 방역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백련배수펌프장 유수지 등 5개소를 선정해 드론 방역소독을 오는 9월 초까지 주 2~3회 실시할 예정이다.

방역은 인체에 무해한 약품을 사용하며 인력방역에 한계가 있는 넓은 면적의 시설물 중심으로 실시한다.

목포시 관계자는 "1회성 방역이 아닌 위생해충 취약지역 중심으로 장기적이고 주기적인 방역을 실시해 시민들의 쾌적한 정주여건 개선과 더불어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시민들께서도 자택 주변 쓰레기 정리 및 고인 물 제거 등 해충 서식지 차단에 자발적인 동참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목포=정기찬 기자

### 벼 농작물재해보험 판매 연장 무안군, 30일까지

무안군(군수 김산)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벼 재배농가의 영농안정을 위해 판매하고 있는 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25일 밝혔다.

당초 23일로 종료할 예정이던 벼 부문 농작물재해보험을 일주일 연장한 것은 모내기 등으로 바쁜 농가들을 배려하기 위한 것.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신분증, 경영체등록증 등 농지의 지번과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지역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농작물 재해보험 외에도 농업인 안전보험 및 농기계 종합보험 또한 보험료의 80%를 지원하고 있으며 영세농업인(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농업인 안전보험료와 농기계 보험료를 전액 지원한다.

무안=김형민 기자

### 미래 무형유산 발굴·육성 공모 진도군 '치기형 민속놀이' 선정

진도군은 2023년 문화재청 '미래 무형유산 발굴·육성사업' 공모에 '진도지역 치기형 민속놀이'가 선정돼 사업비 2억원 확보했다고 25일 밝혔다.

미래 무형유산 발굴·육성사업은 사람들의 무관심과 지역인구 감소 등으로 소멸위기에 처한 비지정 문화유산을 발굴·육성한다. 지난해부터 문화재청이 공모사업으로 선정, 연간 최대 2억원을 지원한다.

진도군은 공모에 선정된 '진도지역 치기형 민속놀이'를 지역의 대표 문화자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치기형 민속놀이는 주로 손과 도구를 사용해 부딪치며 건강한 승부욕을 길러냄과 동시에 교감을 나눌 수 있는 놀이로 교육·복지·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무형유산이다.

진도=백재현 기자

### 전국 장애인체전 성화봉송 주자 목포시, 7월5일까지 모집

목포시는 제104회 전국체전 및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을 밝혀줄 성화봉송 주자를 오는 7월5일까지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성화봉송 주자는 총 62명을 모집, 1개 구간당 6명으로 주주자 2명, 부주자 2명, 호위주자 2명으로 구성되며 성화봉과 마스크티, 엠블럼기를 들고 봉송한다.

성화봉송 주자는 전국체전 개최식이 열리는 10월13일 총 16개 구간 중 차량봉송 6개 구간을 제외한 주자봉송 10개 구간, 3.8km를 나누어 봉송하게 된다.

신청자격은 성화봉송에 건강상 문제가 없는 목포시 거주만 15세 이상인 자로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목포시 전국체전추진단(목포국제축구센터 2층) 및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거나 이메일(smalltank77@korea.kr)로 접수가 가능하다.

선발된 주자는 성화봉송 교육과 예행연습 등 사전교육을 거칠 예정이며, 주자용품 5종(유니폼 상·하의, 운동화, 양말, 장갑) 등이 지급된다.

목포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확인하거나 목포시 전국체전추진단(061-270-4469)으로 문의하면 된다.

목포=정기찬 기자



신안군, 어린 갑오징어 5만 마리 방류

신안군이 최근 압해읍 송공해역과 임지면 하우리해역에 수산자원 증강과 어가 소득 증대를 위해 어린 갑오징어 5만 마리를 방류했다.

신안군 제공

## '지역 상생협력 프로젝트' 완도 전복 신메뉴 속속 등장

### 해산물 샐러드·파스타 등

지역 상생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완도 전복을 활용한 신메뉴가 잇따라 나왔다.

25일 완도군에 따르면 전복을 활용한 신메뉴가 CJ푸드빌이 운영하는 이탈리아 안 비스트로 '더플레이스'를 통해 출시됐다.

신메뉴는 크림 리조토에 버터로 구운 완도 전복을 올린 리조토와 부드럽고 쫄깃한 식감의 해산물 샐러드다.

바질 페스토의 깊은 풍미와 고소한 치

즈가 완도 전복과 조화를 이룬 '완도 전복 바질 페스토 파스타'도 선보였다.

이번 신메뉴 출시는 전남도와 완도군, 장성군, CJ푸드빌 등이 지난달 전복 소비 부진과 가격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이뤄졌다.

CJ푸드빌 외식 브랜드인 빙스와 다른 매장에서도 완도 전복을 활용한 신메뉴가 지속적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완도군과 금산군이 '지역 특산물 공동 상품 개발 마케팅' 업무협약을 맺은 이후

'금산 인삼·완도 전복 삼계탕'이 개발돼 이달 말 출시될 예정이다.

완도 전복은 맥반석과 초석으로 형성된 청정 해역에서 자라 비타민과 철분, 칼슘, 단백질 등이 풍부하고 황산화 작용에 뛰어난 아르기닌이 함유돼 있어 '바다의 산삼'으로 불린다.

완도군 관계자는 "외식기업, 간편식품 제조기업 등과 협업을 가장 간편적이거나 레스토랑 간편식 등 수산물을 활용한 상품을 개발해 전복 소비촉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완도=최경철 기자

## 강진 마량항 바다낚시 어선 7척 유치

강진군은 남해안 해양레저 거점도시 만들기 전략 가운데 하나로 추진해 온 바다낚시 어선 유치가 첫 결실을 맺고 마량항에서 지난 22일 출항식을 가졌다고 25일 밝혔다.

출항식은 강진원 강진군수를 비롯한 군의장, 군의원, 도의원, 마량면 기관·사회단체장, 낚시어선 관계자, 강진산단 입주기업인 SDN 관계자, 군민 등 모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번 출항식은 타지역에 있는 바다낚시 어선 7척을 유치해 침체된 강진군 해양레저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낚시 어선 종사자 인구 유입으로 인한 인구증대와 낚시어선 당일치기나 1박2일 프로그램 체험을 통한 마량항 관광객 증가로 편의점, 식당, 낚시판매점 등 주변지역 상가 소득 증대로 이어짐으로써 지역 경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군민 취미생활 제공이라는 이점을 더해 인구늘리기, 관광객 증가 등 1석3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군은 바다낚시 어선 1대 유치를 위한 지역경제 유발 효과는 연 7억원, 관광객은 3000명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해양레저관광 거점소재지매김 되기 위해 5년내 100척 낚시어선 유치를 목표로 설정했다.

강진원 군수는 "바다낚시 어선은 강진군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부상하는 등 500만 관광객 유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진=김윤복 기자

### 멸종위기종 '큰바다사자' 목격 신안 가거도서 100여 년만에

일제강점기 남획으로 사라진 멸종위기종 '큰바다사자'가 신안군 가거도에서 100여 년만에 돌아왔다.

25일 신안군 등에 따르면 국토 최서남단 신안 가거도에서 멸종위기 II급인 '큰바다사자' 1개체가 지난 22일 관찰됐다.

큰바다사자는 영해기점인 녹섬 갯바위에서 휴식하고 있는 모습이 어업을 마치고 입항하던 주민에 의해 최초 목격됐다.

큰바다사자는 과거 1920년대 신안 가거도 부속섬 구굴도, 개린도에서 120여 개체가 서식했으나 일제 강점기 일본에 의해 남획돼 이후 사라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번 관찰은 무려 100여 년 만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큰바다사자의 집단 서식지는 없지만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 주변 해역, 제주도 등지에서 아주 드물게 관찰되며 멸종위기야생생물 II급으로 지정돼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국토 최서남단 가거도 해역은 '해양생태계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으며, 어족자원이 풍부한 청정지역"이라며 "큰바다사자의 서식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정밀 모니터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안=홍일갑 기자